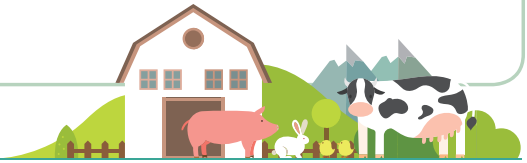




기후변화 대응 고온기 육계 생산성 저하 방지 기술 개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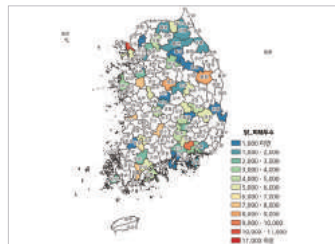
개발배경

- ☉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폭염 증가로 가축 폐사 등 피해 지속적 증가
 - 전체 가축/가금류 피해량(천마리) : ('16) 6,290/5,800 → ('18) 9,078/9,020
- ☉ 가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폐사 감소 기술 개발 필요
 - 사료 및 사육 시설 등 고온기 대응 가금 사양과 환경 개선 방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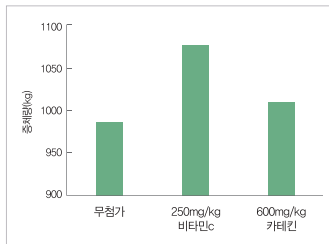


개발 기술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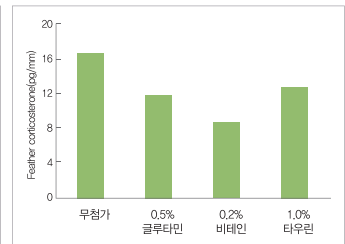
- ☉ 국내 지역별 여름철 농가 폭염 피해현황 조사 및 핵심 취약 지역 도출
 - 주요 폭염 피해 지역 발생건수('19) : 충남(211), 전북(209), 경기도(191) 등
- ☉ 육계 고온스트레스 저감 선발물질 효과 구명
 - 항산화물질 증체량 : (아스타잔틴) 4.5% ↑, (비타민C) 9.2% ↑, (카테킨) 2.3% ↑
 - 아미노산물질 스트레스 호르몬 : (글루타민) 29% ↓, (타우린) 23.4% ↓, (비테인) 47.9% ↓



가금 폭염 피해 현황('19.8)



항산화물질 급여에 따른 증체량



선발물질별 스트레스 수준



파급효과

- ☉ 고온기 대응 농가 사양기술 보급을 통한 폭염 피해 발생 최소화
 - 이상기후 적응 기능성물질 이용성 증진 및 활용 방안 가이드 제시
- ☉ 가금산물 안정적 생산 및 품질 저하 방지를 통한 농가 생산성 개선
 - 육계 후기사료 내 비타민C 첨가효과(250mg/kg) : (증체량) 9.2% ↑, (스트레스) 12.9% ↓